"나로호를 지켜라"

군·경 수천명 만일사태 대비 매복·경계 석달

"국민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꿈이 서린 '나로호'는 우리가 지킨다."

발사에는 성공했으나 정상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절반의 성공 뒤에는 수개월 전부터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와 그 상공, 인근 해역 등 하늘과 땅, 바다에 대한 입체 경계 태세를 유지해온 육·해·공군과 해경의 땀방울이 있었다.

육군 제 31보병사단은 지난 4월부터 발사가 이뤄진 지난 25일까지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연인원 6천여명을 투입, 수색·매복작전을 수행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 된데다 첨단 우주산업의 결정체인 나로우주센터에 침입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31사단은 해안으로 침투해오는 적을 경계하기 위해 침입이 유리한 지형 주변을 선정해 레이더와 기동 TOD(열 추적장비) 등 과학장비를 동원, 해안지역 감시를 강화했다.

201특공여단도 지난 6월 3일부터 연인원 7천여명을 투입, 경계작전 지원에 나섰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 해경도 나로우주센터에 대한 육·해·공 입체 경비에 나섰다. 나로호 발사 수개월 전부터 3군과 해경 등은 사전 협조회의를 통한 긴밀 공조체제 아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우선 다양한 유형의 침투 및 도발 시나리오를 만든 뒤 대항군과 침투군(모의 잠수정 등)을 이용한 쌍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도발'을 막기 위해 준비해왔다.

발사 당일인 지난 25일 해경 등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발사를 위해 '조용한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군·경의 특성상 '조용한 임무'가 필요한데다, 단순 경계임무를 북한이 군사훈련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기관들은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를 앞둔 지난 25일 오후 해경 경비함이 나로우주센터 통제동이 보이는 나로도 해역을 순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능 원서 접수 고교 3학년과 졸업생들이 26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응시 원서 접수는 다음달 12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국선언 교수 무더기 파면 '물의'

강진 성화대학 … '횡령' 총장 퇴진운동 보복 논란

전남지역 한 대학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수들을 무더기로 파면·해임해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강진 성화대와 교수들에 따르면 이 대학은 최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교수 5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들의 연구실 출입문도 폐쇄했다.

이들 교수는 성화대 교수협의회 집행부를 맡고 있으며 지난 6월 9일 광주YMC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광주·전남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대학 측은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20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6명을 우선 중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같은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했다가 "사립학교 교원 임면은 대학을 관리·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반려되자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대학 측은 교문 등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6명의 교수들이 공모 규정 위반, 논문 표절 등의 문제가 있어 파면·해임조치한다"고 밝혔으나 시국선언과 관련한 파면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또 "파면자와 해임자는 학교 출입을 금하며, 파면이나 해임된 교수들을 학교에 들어오도록 도와준 교수나 교직원도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교수들은 "징계 내용이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징계교수)들의 학교출입을 도와준 교수나 교직원까지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독재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 대학 총장은 50억여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올 초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며, 이 교수들은 그동안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총장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은 징계를 철회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해 성화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

/강진=남철희기자 choul@

40대 女 폭행 경찰 잠적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을 찾아가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목포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에 사는 Y(여·49)씨는 지난 23일 "목포경찰서 수사과 J경사(42)가 집으로 찾아와 나를 폭행했다"고 정읍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J경사는 출근을 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채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 Y씨는 지난 5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J경사에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인터넷뱅킹 거액 인출사건 조직·단체 계획 범행 수사

인터넷뱅킹을 통해 광주의 한 사업가의 통장에든 수천만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인출된 사건〈광주일보 11일자 6면〉을 수사중인 광주동부경찰은 26일 주변인 보다 조직이나 단체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김모(54·무역업) 대표의 통장에 있던 4천130만원이 흘러들어간 6개 금융계좌주 2명 중 이모(37·경기도 부천)씨를 소환 조사했다. 또 다른 통장 대여자 유모(55)씨도 용의자의 신원은 알지 못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7월 말쯤 부천의 한 경륜장에서 만난 20대 중후반 남성에게 통장 7개를 전달했다. 통장 1개에 2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돈이 인출된 은행 및 편의점 CD기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보한 용의자의 사진을 이씨에게 보여줬으나, 이씨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CCTV에 담긴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뱅킹이 이뤄졌던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 자금인출이 진행됐고, 인터넷뱅킹을 시도한 자와 자금을 인출한 자 등으로 역할이 나눠졌으며, 사전에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 김 대표의 지인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CCTV에 잡힌 용의자 1명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한 지역을 좁혀가면서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뒤쫓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법 "아파트 복도도 주거침입 대상"

거주자의 뜻에 반해 아파트·빌라 등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26일 동료가 망보는 사이 빌라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보고 나온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구속기소된 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산가리 막걸리' 사망자 남편도 체포

검찰, 딸과 공모 여부 조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자신의 부인과 마을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9)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용의자 A씨는 숨진 최모(여·59)씨의 남편이다. 검찰은 이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전날 붙잡힌 자신이 딸(26)과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숨진 최씨의 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벌여 왔으나 청산가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 단독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용의자인 A씨와 딸을 상대로 범행 공모 여부와 청산가리 구입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날 긴급 체포된 숨진 최씨의 딸(26)에 대해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A씨의 자백과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아빠 보고싶어" 초등생 자살 소동

쌍나팔

○…25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15층에서 A(12·초교 6년)양이 창틀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119에 신고.

○…119구조대는 바닥에 에어 매트를 설치해 추락에 대비했으며 로프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40여분 만에 A양을 구조.

○…구조대 관계자는 "가족의 말로 미뤄 A양이 몇 년 전 숨진 아버지를 보고 싶어 자살소동을 벌인 것 같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A양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